

# ‘취미’ 단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신인환\* · 김문기\*\*

## 〈차 례〉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일본의 한국어 교재 분석
4. 교재 분석의 결과
5.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특히 ‘취미’ 단원에 국한하여 어떠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교재의 단원 구성적 측면과 어휘, 문법, 본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내용을 각각 검토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원 구성의 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② 단원의 어휘 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제시했다라도 주제, 학습자의 수준, 분량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③ 문법에서도 주제와의 긴밀성, 실제성 등이 부족하거나 연습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④ 본문과 듣기 대본, 읽기 텍스트를 제시할 때 주제와 관련된 맥락 유지, 표현의 실제성, 완성도 등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⑤ 말하기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⑥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을 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거나 읽기와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일본, 한국어 교재 분석, 일본인 학습자, 취미 단원, 단원 구성

\* 제1저자, 일본 마쓰야마대학교(松山大学) 경제학부 특임강사(한국어 교육)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 1. 서론

현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교수-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대상과 목적 등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통합 교재뿐만 아니라 기능별 교재, 나아가 여러 특수 목적의 교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특색을 갖춘 교재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국내의 경우만큼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삼아 그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본래 일본에서 출간된 모든 한국어 교재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검토해 보려 한다.

### (1) ㄱ.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 ㄴ.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저자가 개발에 참여한 교재

이때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교재들을 대상으로 하되, ‘취미’ 단원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여러 교재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교재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단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미’ 단원을 예로 삼아 단원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이 단원 구성과 내용 전개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교재들에서는 특정 단원에서의 내용과 문법 항목 제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공통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취미’ 단원에서는 ‘-는 것’, ‘-(으)ㄴ N’ 등과 같은 문법이 공통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셋째, 특정 단원의 주제와 내용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재들에서는 ‘취미’ 단원에서는 ‘취미’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구성을 보이는데,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의 내용 구성에서 주제와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1)</sup>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서 ‘취미’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분석과 관련된 몇몇 연구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 한다.<sup>2)</sup> 먼저 김경자(2005:21-42)에서는 5종의 한국어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구성면에서는 ‘구성 원리와 교수요목 유형, 단원 구성과 그 특징’을, 학습면에서는 ‘주제, 담화와 화용, 어휘, 발음, 문법, 문

1)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다룬 한국의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취미’ 단원 내용 구성(〈표 4〉)과, 일본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3) 영역별 교재 분석’ 내용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2)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특정 단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이에 정확히 부합되는 선행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포괄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도 포함했다. 이에 검토 대상으로 삼은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자, 「일본 대학의 교양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2005). 마쯔자키 마히루, 「일본에서의 한국어 듣기 교재 분석 연구-듣기 자료의 담화 유형 및 듣기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5-1,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2008). 박소연,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 -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1). 김미례,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 일본 현지 출판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2015). 가이도 리카, 「일본 출판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대화 문 분석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2023).

한편, 교재 평가와 관련해서는 김영만,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역락, 2005), 142-166쪽, 서종학·이미향·박진옥, 『제2판 한국어 교재론』(한국문화사, 2020), 208-248쪽, 강현화 외, 『한국어 교재론』(한국문화사, 2022), 105-113쪽, 황인교,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2003), 295-319쪽, 강남옥·김호정, 「한국어 교재 평가론의 통시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2012), 17-20쪽, 홍종명·이준호·안정호,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국내외의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2020), 102-112쪽 등을 참고하였다.

화, 학습 활동'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교재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각 영역에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나타냈기에, 영역 상호 간의 구체적인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마쯔자키 마히루(2008:129-144)에서는 일본의 듣기 교재 3종을 대상으로, 듣기 자료의 담화 유형,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담화 유형에서는 '발화의 형태, 목적', 듣기 활동에서는 '인지적 유형, 상호작용 활동'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의 기능 교재들에서 담화의 측면에서만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박소연(2011:103-117)에서는 국제문화포럼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일본의 4년제 5개 대학 이상에서 1,000명 이상 사용하는 초급 한국어 교재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5개의 교재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했다. 이때 '소개하기'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별 단원 구성과 그 유기적 연계성을 살폈고, 내용 구성면에서 주제, 문법, 어휘, 발음,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내용 구성면의 분석에서 각 단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미례(2015:45-82)에서는 일본 내 일반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지 출판 한국어 초급 교재 3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내용 분석의 경우, '주제, 문법, 어휘, 발음, 문화' 등을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각 교재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교재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다만, 이 논의 역시 교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교재들 사이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이도 리카(2023:11-59)에서는 한국어 초급 말하기 교재 4종을 대상으로 그에 제시된 대화문을 분석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요소로서 '주제, 장소, 대화 참여자의 관계'를, 형식적 요소로서 '대화문의 길이, 삽화 및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만, 말하기 교재의 대화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라 하겠다.

이처럼 일본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몇몇 논의에서는 교재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기에 각 단원 또는 각 단원을 구성하는 영역 등을 대상으로 그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재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단원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3. 일본의 한국어 교재 분석

#### 1) 분석 대상 교재 소개

여기에서는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을 소개하면서 이들 교재에서 제시된 ‘취미’ 단원에서 어떠한 구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들의 체제와 그 단원 구성의 방식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교재와 그 단원 구성<sup>3)</sup>

교재	약호	교재명 / 단원	단원 구성 <sup>4)</sup>
金泰虎(2015)	〈가〉	韓国理解への鍵 12. 趣味は何ですか。	본문-본문 일본어 번역-발음-축약형-어구(문법)
朴瑞庚·林河運·崔在佑(2016)	〈나〉	スクスク韓国語 11. 취미	본문-어휘-발음-문법-듣기
金菊熙·李順蓮·安蕙蓮·李旼映(2018)	〈다〉	いよいよ韓国語 5. 취미가 뭐예요?	어휘-문형 연습-대화 연습 A, B (본문)-과제 1: 읽기/쓰기-과제 2: 듣기-단원 평가-어휘와 표현 정리

3) 金泰虎, 『韓国理解への鍵』(白帝社, 2015), 朴瑞庚·林河運·崔在佑, 『スクスク韓国語』(朝日出版社, 2016), 金菊熙·李順蓮·安蕙蓮·李旼映, 『いよいよ韓国語』(朝日出版社, 2018), 李幸宣, 『みんなで一緒に! 韓国語 1』(五味出版社, 2022), 金永鍾·張榮順·黃貞蘭, 『美しいキャンパス韓国語 1』((株)美しい韓国語学校, 2022), 金智賢, 『改訂版 教養韓国語 初級』(朝日出版社, 202), 酒広康裕·金重燮, 『ワイワイ話そう中級韓国語』(朝日出版社, 2023), 李順蓮·朴珍姬·金菊熙, 『とくとく韓国語 1』(朝日出版社, 2024).

李幸宣(2022) <sup>5)</sup>	<라>	みんなで一緒に！韓国語 1 7. 취미가 뭐예요? (趣味は何ですか。)	어휘-문법과 표현-본문-듣고 말하기-읽고 쓰기-한국 문화
金永鍾·張榮順· 黃貞蘭(2022)	<마>	美しいキャンパス 韓国語 1 7. 취미가 뭐예요? (趣味は何ですか。)	생각해 보세요-대화를 읽어 보세요(본문)-배워 보세요(문법, 어휘)-더 배워 보세요(어휘)-말해 보세요-응용해 보세요-써 보세요-들어 보세요-연습해 보세요
金智賢(2023)	<바>	改訂版 教養韓国語 初級 13.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문법-어휘-회화(본문)-어휘(회화 관련 어휘)
酒広康裕·金重燮 (2023)	<사>	ワイワイ話そう 中級韓国語 1. 취미 생활	이야기하기 전에-어휘 및 문형 확인-표현 연습 1(말하기)-표현 연습 2(쓰기, 말하기)
李順蓮·朴珍姬· 金菊熙(2024)	<아>	とくとく韓国語 1 12. 제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私の趣味は写真を撮ることです。)	어휘-문형-말하기(본문)-읽기-쓰기-듣기

국내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들은 그동안 영역별, 기능별 학습 내용이 전반적으로 통합 유형의 구성을 갖추고,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sup>6)</sup> 일본 내의 교재들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재이면서 다양한 학습 내용이 통합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달리 영역별, 기능별 학습 내용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교재를 구성하여, 통일성을 갖추었다기보다 교재마다 특수한 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현화 외(2022)의 교재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표 1>의 단위 구성을 통해 각 교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7)</sup> 다만, 강현화 외(2022)의 유형 분류는 기존의 통합 교재에 대한 유형 분류라기보다 각 영역 및 기능별 교재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통합 교재로서의

4) '단위 구성'의 '( )' 표시는 교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가 설명을 나타낸다.

5) 이 교재는 한국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지만, 현재 일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되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한국에서 출간된 교재가 일본의 현지 상황에 맞게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6) 최근 들어서는 대표적인 대학의 언어 교육 기관마다 각각의 언어 기능별 교재들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7) 강현화 외, 『한국어 교재론』(한국문화사, 2022), 127-232쪽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세부 구성적 유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각 세부 유형은 전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학습 목적별, 영역별, 기능별<sup>8)</sup>’로 제한하고 일본의 교재에 맞게 변형 및 단순화하였다.

〈표 2〉 일본의 한국어 교재 유형

교재	학습 목적별	영역별	기능별	
			기능 통합	제시된 기능
〈가〉	일반 목적	발음, 문법	해당 없음	없음
〈나〉	일반 목적	어휘, 발음, 문법	기능 분리	듣기
〈다〉	일반 목적	어휘, 문법	기능 분리	읽기, 쓰기, 듣기
〈라〉	일반 목적	어휘, 문법	부분 통합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마〉	일반 목적	문법, 어휘	기능 분리	말하기, 쓰기, 듣기
〈바〉	일반 목적	문법, 어휘	해당 없음	없음
〈사〉	일반 목적	어휘, 문법	기능 분리	쓰기, 말하기
〈아〉	일반 목적	어휘, 문법	기능 분리	말하기(본문), 읽기, 쓰기, 듣기

〈표 2〉에 제시된 일본의 한국어 교재들은 모두 일반 목적의 통합 교재들 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기능별 구성의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여서 일 관된 구성 방식을 찾기 어렵다. 이는 국내 교재들이 일반적으로 어휘, 문법 영역과 함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으로 각각 구성되 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먼저 영역별로 보면, 〈가〉를 제외하고 모든 교재들에서 ‘어휘’와 ‘문법’ 영 역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가〉와 〈나〉의 경우에는 ‘발음’ 영역 도 제시했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룬다기보다 특정 어휘나 문법적 표현 에 대한 발음을 간단히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다.

유형		종류
영역별		한국어 자모 및 발음 교재, 어휘 교재, 문법 교재, 문화 교재
기능별	기능의 통합 여부	기능 통합형, 부분 통합형, 기능 분리형
	기능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습 목적 및 대상별		일반 목적 학습자, 학문 목적 학습자, KSL 배경 학습자, 직업 목적 학습자,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매체별		시각 매체 활용, 청각 매체 활용, 시청각 매체 활용, 상호작용 매체 활용 (웹 기반 교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교재)

8) 기능별 요소의 경우, 교재 내에 기능 통합의 여부, 통합 방식에 따라 ‘해당 없음, 기능 분리, 부분 통합, 기능 통합’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기능별 요소에서는 <가>와 <바>는 언어 기능 제시가 없고, <나>는 ‘듣기’ 기능 제시에 머물러 의사소통 중심의 교재로서는 부족한 점을 보인다. <다>, <마>, <사>의 경우, 언어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각 기능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언어 기능 활동에서도 유기적이고 일관된 특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라>, <아>는 국내 교재들의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라>는 구어적 기능과 문어적 기능이 부분 통합되어 있었지만, <아>는 각 기능이 분리되어 제시된다. 다만, <아>에서는 본문의 대화에 대한 교체 연습을 ‘말하기’로 상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각 교재들의 단원 구성에서 보이는 대략적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에서는 ‘본문’만 제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 어떤 기능들을 함께 처리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리고 어휘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 영역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나>에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듣기’에 제시된 활동을 볼 때, ‘듣기’에 해당하는 대본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제일 앞에 제시된 ‘본문’을 ‘듣기’ 텍스트로 다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sup>9)</sup> <다>에서는 ‘말하기’ 영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본문’에 해당하는 ‘대화 연습’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에서는 일반적인 통합 교재의 단원 구성을 보이는데,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마>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생각해 보세요’가 있다는 점이 다른 교재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좋아하는’과 같이 관형사형의 어미가 결합된 용언을 하나의 어휘처럼 제시하고 있었으며, ‘어휘’와 ‘문법’의 제시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능 영역 중 ‘듣기’가 제일 뒤에 제시되어 있고, 종합 연습 문제들이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었다. <바>에서는 ‘문법’과 ‘어휘’가 먼저 제시된 후, ‘회화’가 제시되고<sup>10)</sup> 다시 본문

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표 6>과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이때 ‘회화’는 ‘본문’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말하기’ 기능을 함께 다루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회화와 관련된 ‘어휘’가 제시된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는 일반적인 통합 교재에서 보이는 교재 구성 방식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다. 먼저 해당 단원의 ‘본문’이나 ‘듣기’大本, ‘읽기’ 텍스트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야기하기 전에’를 통해 해당 단원에서 교수-학습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었다. 예를 들어 ‘말하기’나 ‘쓰기’ 등을 할 수 있는 참조 대화나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교수-학습할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어휘 및 문형 확인’에서는 ‘어휘’와 ‘문법’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일본어 어휘나 문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번역하여 제시할 뿐이었다. <아>에서는 ‘어휘’와 ‘문형’을 제시한 후에 ‘본문’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문’의 대화를 ‘말하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제나 활동의 발문을 일본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제시하였다.<sup>11)</sup> 이때 상위 문항의 발문은 일본어로, 하위 문항의 발문은 한국어로 제시한 것도 있고 일본어로 제시한 것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다.<sup>12)</sup>

## 2) 교재 분석의 방법

여기에서는 <표 1>의 교재들을 대상으로 단원 내용에 해당하는 ‘어휘와 문법’, ‘본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김경자(2005:23), 서종학·이미향(2007:164-174), 박소연(2011:104), 김미례(2015:50-51), 강현화 외(2022:105-121) 등에서의 교재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 다른 교재들에서는 보통 발문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12) 이는 발문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 등이 해당 수준의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次の会話を聞いて問いに答えなさい.’의 경우는 이것을 한국어로 제시해도 해당 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발문이다. 따라서 발문에 나오는 어휘나 문법 등이 해당 수준의 학습자에게 너무 어려워서 일본어로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문이 한국어로만,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시되는 등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표 3〉 일본의 한국어 교재 내용 분석 기준

구분	분석 기준
어휘	단원 주제에 적합한 어휘인가?
	어휘를 독립적으로 제시했는가?
	어휘 제시 방법이 효과적인가?
	어휘의 수가 학습 부담량에 적절한가?
문법	단원 주제와 관련된 것인가?
	단원 주제의 수준에 적합한 것인가?
	제시된 문법 항목들의 난이도가 균형적인가?
	단원 주제와 관련하여 문법의 수가 적절한가?
	문법 제시 방법이 효과적인가?
본문	제시된 문법의 연습이 충분한가?
	본문이 제시되어 있는가?
	단원 주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형식인가?
	단원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가?
	단원 주제에 대한 맥락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가?
	단원 주제에 대한 맥락이 자연스러운가?
	단원에서 제시된 어휘, 문법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한국어다운 표현을 사용하는가?	
듣기	듣기 텍스트의 유형이 적절한가?
	단원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말하기	단원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읽기	단원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읽기 텍스트의 유형이 적절한가?
	읽기 텍스트가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었는가?
	읽기 텍스트에 어문 규정이 잘 반영되었는가?
쓰기	읽기 텍스트의 내용 구성이 잘 갖추어졌는가?
	단원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가?
	쓰기에 필요한 적절한 안내가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한국어 교재 내용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더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한국에서 출간된 몇몇 한국어 교재들의 ‘취미’ 단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 출간 한국어 교재의 '취미' 단원 내용 구성<sup>13)</sup>

구분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대 한국어 2A	이화 한국어 1-2	고려대 한국어 2A
단원	2과 취미	15과 취미	3과 여가 생활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을 찍다, 음악을 듣다, 춤을 추다 등</li> <li>•영화/음악 감상, 등산, 독서 등</li> <li>•아주, 별로, 전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 찍는 것/사진 찍기, 수영하는 것/수영하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라마를 보다, 스마트폰/게임/요가/산책/농구를 하다, 운동 경기를 보다, 자전거를 타다, 배드민턴을 치다, 피아노를 치다, 약기를 배우다, 춤을 추다, 헬스장에 가다 등</li> <li>•자주, 가끔, 거의 안, 전혀 안 등</li> </ul>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는 것</li> <li>•V-(으)ㄴ 줄 알다/모르다</li> <li>•V-(으)ㄴ N</li> <li>•A/V-지 않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는 + N</li> <li>•V+(으)ㄴ + N</li> <li>•V+(으)ㄴ + N</li> <li>•V+아/어 보다</li> <li>•A/V+아/어도 되다</li> <li>•A/V+(으)면 안 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으)러 가다</li> <li>•-(으)ㄴ 때</li> <li>•는 것</li> </ul>
본문	<p>〈말하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하는 것에 대한 대화 (취미 관련 연습)</li> </ul> <p>〈말하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호회 관련 대화(동호회 관련 연습)</li> </ul>	<p>〈말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화 제시: 동아리 활동 소개(취미 소개, 동아리 가입 권유)</li> <li>•대화 제시: 등산할 때 주의 사항 알려 주기(주의 사항 묻기)</li> </ul>	<p>〈배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표현: 대화, 말하기</li> <li>•수업 후 여가 활동: 대화, 말하기</li> <li>•취미: 대화, 말하기</li> <li>•빈도: 대화, 말하기</li> </ul>
듣기, 말하기	<p>〈듣고 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호회 활동 소개하기</li> <li>•동호회 활동에 대한 대화 듣기</li> <li>•동호회 만들고 소개하기</li> </ul>	<p>〈들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미 생활에 대한 대화 듣기</li> </ul>	<p>〈들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생활</li> <li>〈말해요〉</li> <li>•취미 말하기</li> </ul>
읽기, 쓰기	<p>〈읽고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미 소개하는 블로그 글 읽기</li> <li>•취미 소개하는 블로그 글 쓰기</li> </ul>	<p>〈읽고 써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호회를 소개하는 글 읽고 쓰기</li> </ul>	<p>〈읽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미(피아노)</li> </ul> <p>〈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미 소개</li> </ul>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들에서 '취미' 단원은 모든 내용이 '취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3)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2A』, 문진미디어, 2015, 46-67쪽. 이미혜 외, 『이화 한국어 1-2』,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18, 128-143쪽. 고려대 한국어센터, 『고려대 한국어 2A』, 고려대출판문화원, 2022, 61-77쪽.

### 3) 영역별 교재 분석

여기에서는 분석 대상의 교재들을 편의상 ‘어휘와 문법’, ‘본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영역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어휘와 문법

구분	어휘	문법
〈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랍니다/이랍니다, -라고/이라고 합니다</li> <li>• -군요</li> <li>• -아/어 보고 싶어요</li> <li>• -고 싶어요</li> <li>• 조사</li> </ul>
〈나〉	(본문의 어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나</li> <li>• -을/를 좋아해요</li> <li>• 불규칙: ‘ㄷ’ 불규칙, ‘르’ 불규칙</li> <li>• -겠-</li> </ul>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 게임을 하다, 그림을 그리다, 독서를 하다, 드라마를 보다, 사진을 찍다, 산책을 하다, 쇼핑을 하다, 수영을 하다, 여행을 하다, 영화를 보다, 요가를 하다, 음악을 듣다, 책을 읽다, 콘서트를 보다, 테니스를 치다, 피아노를 치다</li> <li>•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밤/오전, 오후/오늘, 내일, 모레, 주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를</li> <li>• -아요/어요</li> <li>• -을/를 좋아하다</li> <li>• -습니다/바니다, -습니까/바니까</li> </ul>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2</li> <li>• 빈도 부사: 항상, 언제나, 자주, 가끔, 거의+부정 표현, 전혀+부정 표현</li> <li>• 취미: 여행, 등산, 요리, 운동, 게임, 음악 감상(음악 듣기), 독서(책 읽기), 영화 감상(영화 보기), 사진 찍기, 춤 추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는 것</li> <li>• N부터 N까지</li> <li>• V-(으)니까요?</li> <li>• V-(으)니까</li> </ul>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쇼핑, 음악감상, 댄스</li> <li>- 독서, 영화감상, 드라마감상, 음악감상, 여행, 등산, 쇼핑, 사진찍기, 노래, 댄스, 인터넷게임, 요리, 축구, 농구, 수영, 테니스</li> </ul> </li> <li>• 전공: 컴퓨터공학/공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専門分野の名前: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물리학, 화학, 약학, 의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가 아니에요</li> </ul>

14) 여기서 『고려대 한국어 2A』는 ‘여가 활동’의 하위 주제로 ‘취미’를 다루고 있었는데, ‘취미’ 부분에서는 문법 ‘는 것’을 활용하여 취미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学部の名前: 경영학, 기계공학, 법학, 정치학</li> <li>• 고향: 오키나와, 부산, 홋카이도, 대전</li> <li>• 어디</li> <li>• 좋아하는</li> </ul>	
<바>	<p>&lt;취미 일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감상: 클래식, 가요, 팝송, 재즈, 록</li> <li>- 영화 감상: 드라마, 액션, 코미디, 공포, 공상과학</li> <li>- 독서: 소설, 수필, 시, 만화, 잡지</li> <li>- 운동: 볼링,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수영</li> <li>- 요리: 불고기, 국밥, 육회, 비빔밥, 김밥, 냉면, 짜장면, 삼계탕, 잡채, 전</li> <li>-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드럼, 플루트, 바이올린</li> <li>- 바둑,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사진찍기, 여행, 서예, 낚시, 꽃꽂이, 등산, 드라이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요/어요/여요</li> <li>• 안+용언</li> </ul>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제시 어휘 활동, 파티, 또한, 그러면서, 기회, 선호되다</li> <li>• Tip 형태의 제시 어휘 주제 관련 어휘: 독서, 인터넷, 등산, 빠지다, 집중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li> <li>• -에 대해서</li> <li>• -을/를 통해서</li> <li>• -마다</li> <li>• -動거나</li> </ul>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임을 하다-게임 하기</li> <li>그림을 그리다-그림 그리기</li> <li>기타를 치다-기타 치기</li> <li>노래를 부르다-노래 부르기</li> <li>드라마를 보다-드라마 보기</li> <li>사진을 찍다-사진 찍기</li> <li>음악을 듣다-음악 듣기</li> <li>책을 읽다-책 읽기</li> <li>테니스를 치다-테니스 치기</li> <li>스키를 타다-스키 타기</li> <li>여행을 가다-여행 가기</li> <li>영화를 보다-영화 보기</li> <li>산책을 하다-산책하기</li> <li>쇼핑을 하다-쇼핑하기</li> <li>수영을 하다-수영하기</li> <li>요리를 하다-요리하기</li> <li>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그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고 싶다</li> <li>• V-는</li> <li>• 'ㄷ' 불규칙</li> </ul>

<가>에서는 '어휘' 영역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취미 단어를 고르는 문제의 보기로만 취미 단어가 제시될 뿐이었다. 그리고 '문법'은 '어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문법 목록과 함께 일본어 번역만 간단히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제시된 문법들이 '취미' 단원에서의 적합성인데, 해당 문법의 쓰임새

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둘째, 문법 연습도 ‘-고 싶다, -아/어 보고 싶다’에만 중점을 두어 나머지 문법들의 연습에는 소홀하였다. 셋째, 제시된 문법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 싶다’, ‘-아/어 보다’, ‘-랍니다’ 등은 같은 수준의 문법으로 보기 어려웠다. 넷째, 주제와 관련된 문법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어 취미를 소개할 때 많이 쓰이는 ‘-기나 -는 것’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에서도 독립된 ‘어휘’ 부분을 따로 두지 않고, 본문에 제시된 ‘어휘’만을 본문 뒤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취미’를 표현할 때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문법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ㄷ’ 불규칙, ‘르’ 불규칙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에서는 ‘취미’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제시하였고, 시간 읽기와 낱짜 읽기에 관련된 표현을 제시하였다. ‘문법’에 해당하는 ‘문형 연습’에서는 주로 종결 어미를 제시하였으며, ‘-을/를’과 함께 ‘-을/를 좋아하다’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종결 어미들은 ‘-아요/어요’, ‘-습니다/버니다, -습니까/버니까’로서, 단순한 어미 활용형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웠다.<sup>15)</sup>

〈라〉의 ‘어휘’에서는 ‘시간 표현, 빈도 부사, 취미 어휘’ 등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취미 어휘’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제와 관련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V-는 것, N부터 N까지, V-(으)ㄹ까요?, V-(으)버시다’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었지만, ‘취미’ 자체로만 본다면 ‘V-는 것’ 정도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에서는 ‘문법’ 영역이라는 명시적 제시 없이 ‘-이/가 아니예요’만 제시되어 있었는데, ‘취미’와의 관련성을 확보한다고 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어휘’에서는 ‘취미’ 관련 어휘보다 ‘전공’이나 ‘고향’ 등의 어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바〉에서는 ‘어휘’의 측면에서 볼 때, 취미에 대한 기본 단어와 그 하위 단

15) ‘취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오히려 ‘제 취미는 -는 -이에요/예요나 -는 것’, ‘-기’ 등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학습 부담량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초반부에는 기본 단어와 하위 단어의 제시라는 틀을 유지하는데, 후반부에서는 기본 단어만을 단순 나열하고 있어서 어휘 제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문법'의 경우, '-아요/어요/여요'를 제시하면서 기본 동사 활용만을 위한 문법을 다루고 있어서 단원의 주제인 '취미'와 관련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부정 부사 '안'을 제시했음에도 그 연습 문제에서는 오히려 빈도 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어 접속 부사 '그리고/그래서/그러면(그림)/그런데(근데)/그러니까(그니까)'를 제시했지만, 이의 활용 연습을 위한 문제는 없었다.

<사>에서는 '어휘 및 문형 확인' 부분에서 어휘와 문법을 뒤섞어 제시하면서 해당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일본어 번역만 제시했는데, '취미'와의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참고 사항처럼 제시한 '주제 관련 어휘'에서도 '독서, 인터넷, 등산, 빠지다, 집중하다'만을 다루어서 어휘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였다.

<아>의 '어휘'에서는 '취미' 관련 어휘를, '게임을 하다-게임하기'처럼 통사적 구성과 그 명사형을 짝지어 제시하였다.<sup>16)</sup> 그리고 '문법'에서는 '-고 싶다', '-는',<sup>17)</sup> 'ㄷ 불규칙'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취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6> 본문

<가>	유진: 다나가 씨, 취미가 뭐예요? 田中: 여행이에요. 유진: 저는 바둑이 취미랍니다. 田中: 김 유진 씨는 취미가 아주 고상하시군요. 유진: 그런데 여름 방학 때는 어디에 가 보고 싶어요? 田中: 꼭 한국에 가고 싶어요.
-----	---

16) 통사적 구성(게임을 하다)을 제시할 때에는 그것으로 형성된 통사적 합성어(게임하다)를 제시하고, 그 명사형(게임하기)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사형 '-기'가 사용된 어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지 않았다.

17) 이때 관형사형 어미의 현재형인 '-는'만 제시하는 것은 '취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보통 '취미'와 관련해서는 '-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p>&lt;나&gt;</p>	<p>유미: 하라 씨, 취미가 뭐예요?                  하라: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유미: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라: 저는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주말마다 친구하고 노래방에 가요.                  유미: 그래요? 그럼, 언제 우리 같이 노래방 갈까요?                  하라: 좋아요. 재미있겠네요.</p> <p>-----</p> <p>지난 토요일에는 유미 씨와 노래방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따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p>
<p>&lt;다&gt;</p>	<p>[A]                  아우미: 다니엘 씨, 취미가 뭐예요?                  다니엘: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매일 수영을 해요. 아우미 씨는 뭘 좋아해요?                  아우미: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매일 밤 드라마를 봐요.</p> <p>[B]                  선생님: 마크 씨,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 갑니까?                  마크: 아니요, 공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녁에는 무엇을 합니까?                  마크: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합니다.</p>
<p>&lt;라&gt;</p>	<p>제임스: 사쿠라 씨는 취미가 뭐예요?                  사쿠라: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제임스: 무슨 음악을 자주 들어요?                  사쿠라: 저는 케이팝을 자주 들어요. 제임스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임스: 저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PC방에 가요.                  사쿠라: 저도 가끔 게임을 해요. 오후에 같이 게임을 하러 갈까요?                  제임스: 미안해요. 오늘은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사쿠라: 그러면 수업 끝나고 같이 갑시다.</p>
<p>&lt;마&gt;</p>	<p>하루카: 취미가 뭐예요?                  민준: 제 취미는 게임이에요. 하루카 씨는 취미가 뭐예요?                  하루카: 제 취미는 영화감상이에요. 민준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민준: 제 고향은 서울이에요. 하루카 씨는 고향이 도쿄예요?                  하루카: 아니요, 도쿄가 아니에요. 나고야예요.                  민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뭐예요?                  하루카: 비빔밥이에요.</p>
<p>&lt;바&gt;</p>	<p>가: 유미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나: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가: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나: 액션하고 코미디를 좋아해요.                  가: 그래요? 그럼 공포 영화는 어때요?                  나: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가: 영화(는) 자주 보러 가요?                  나: 아뇨, 늘 일이 바빠요. 그래서 가끔 보러 가요.</p>
<p>&lt;사&gt;</p>	<p>없음</p>



〈아〉	[會話 A]
	하나: 상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상우: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번 연휴에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하나 씨 취미는 뭐예요?
	하나: 제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우리 학교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아요.
	[會話 B]
	마크: 안나 씨는 운동을 좋아해요?
	안나: 네, 좋아해요. 제 취미는 테니스 치기예요. 그래서 자주 테니스를 쳐요. 마크 씨도 운동을 좋아해요?
	마크: 아니요,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음악을 들어요.

위 표를 보면, 〈사〉에서는 ‘본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교재들을 살펴본다. 먼저 〈가〉는 대화의 맥락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않고 어색해 보인다.<sup>18)</sup> 서로 취미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그 취미에 대한 평가 표현(고상하다)의 등장, 연결어(그런데) 쓰임의 부적절, ‘가고 싶은 곳’으로의 내용 확장,<sup>19)</sup> 대화의 미완결<sup>20)</sup>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덧붙인다면, ‘고상하다’나 ‘랍니다’, ‘-군요’ 등과 같이 해당 교재의 수준에서 어려운 단어나 실제 사용한다고 보기에 어색한 문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나〉에서는 대화문과 함께 그 아래에 일기 형식처럼 이후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을 ‘본문’으로 제시하였다.<sup>21)</sup> 대화의 맥락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다만 ‘하러’의 두 번째 대사에서 ‘그래서’와 같은 접속어를 사용하는 것이 앞뒤 문장 연결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다〉에서는 ‘대화 연습 A, B’를 ‘본문’처럼 제시하였는데, ‘취미’가 아닌 다

18) 이러한 본문 대화 맥락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김미례,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 일본 현지 출판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5, 62-65쪽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소영, 「초급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대화 원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171-173쪽, 176-179쪽에서는 ‘취미’를 주제로 한 대화 구성에 대한 사례를 보여 준다.

19) 물론 ‘여행’이 취미라서 이러한 확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둑’이 취미인 경우는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 자연스러운 한국인의 대화라면, 마지막 대답에 대한 이유를 떠올릴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 여기에서는 ‘홍겹다’라는 단어가 제시되는데, ‘ㅂ 불규칙’이 ‘문법’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난이도로 볼 때도 적합하지 않았다.

른 주제로 대화를 제시함으로써 단원의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A에서는 '-을/를 좋아해요'를 사용하여 '취미'보다는 오히려 선호도에 대한 대화를 제시했다. B에서도 주로 시간 표현이나 일정, 계획 등을 다룸으로써 '취미'와 직접적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라〉의 '본문'에서는 후반부에 시간 표현을 사용하여 관련성이 부족해 보였지만, '취미'라는 주제로 비교적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마〉에서는 대화를 통해 '본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초반부에서는 취미를 묻고 답했지만, 중반부에서부터는 갑자기 고향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물어보는 대화로 이어져 주제와의 긴밀성이 떨어졌다.

〈바〉에서는 '본문'으로 제시한 '회화'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가, 나'로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취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을/를 좋아해요'를 사용하여 '취미'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을 나타내고 있다.<sup>22)</sup> 더구나 '선호/비선호하는 영화', '그것을 하는 빈도', '현재의 상황' 등이 한꺼번에 제시되어 '취미'의 맥락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아〉에서는 '본문' 없이 '말하기' 영역에 기존의 본문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는 단원의 핵심 어휘와 문법을 제시하는 본문 텍스트와, 이를 확장하여 자유롭게 활용 연습하는 말하기 텍스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어 보인다. 먼저 '會話 A'에서는 취미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을/를 좋아해요'를 사용하여, 〈다〉나 〈바〉에서처럼 단원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가고 싶은 여행지가 '일본'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어색하다. 더구나 마지막 대사에서 등장인물의 취미에 이어 학교에 사진 찍는 사람이 많다는 불필요하며 새로운 정보를 제시했기에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또한 '會話 B'에서는 '운동을 좋아해요?'라는 질문에 좋아한다는 대답 직후, 바로 자신의 취미를 '테니스 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한국어다운 표현으로 보기 어려웠다. 즉, '제 취미는 테니스 치기예요.'보다는 '테니스가 제 취미예요.', '테니스 치

22) '취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는 것'이나 '-기' 등의 문법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는 것이/게 제 취미예요.' 등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표 7〉 듣기

〈가〉	없음
〈나〉	문제1は正しい番号を選選んでください。問題2と問題3は○か×をつけてください。 (본문을 듣기 텍스트로 활용)
〈다〉	<p>1.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저는 야구를 아주 좋아해요. 아침에 자주 야구를 해요.                  (2) 제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에요. 매일 밤 게임을 해요.                  (3) 제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산과 바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p> </div> <p>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안녕하세요? 저는 아유미예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                  매일 아침 태권도를 배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점심에는 친구와 같이 밥을 먹어요.                  친구하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요.                  주말 저녁에는 언니하고 전화를 해요.                  언니는 도쿄에 살아요.</p> </div> <p>(1) 들은 내용과 일치하면 ○, 틀리면 × 하세요.                  (2) 아유미 씨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p>
〈라〉	<p>1.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남자: 내일 시간 있어요?                  여자: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2시부터는 시간 괜찮아요.                  남자: 그럼 내일 오후에 같이 노래방에 갈까요?                  여자: 미안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안 좋아해요. 영화는 어때요?                  남자: 좋아요. 그러면 내일 2시에 만납시다.</p> </div> <p>(1)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2) 내일 두 사람은 무엇을 할 거예요?</p> <p>2. 다음을 듣고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여자: 마이클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남자: 제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마리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여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남자: 그럼 이번 주말에 바다에 같이 갑시다.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여자: 네, 괜찮아요.                  남자: 그럼 오전 10시에 만날까요?                  여자: 좋아요.</p> </div> <p>(1) 남자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2) 여자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3) 두 사람은 언제 바다에 갑니까?</p>

<p>&lt;마&gt;</p>	<p>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곳에 ○표를 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지윤 씨는 변호사예요? 아니요, 변호사가 아니예요. 간호사예요.</p> <p>(2) 리 씨는 한국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사람이 아니예요. 중국사람이에요.</p> <p>(3) 민정 씨, 취미가 독서예요? 아니요, 독서가 아니예요. 여행이에요.</p> <p>(4) 유스케 씨,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아니요, 축구가 아니예요. 야구예요.</p> </div> <p>2. 다음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영민: 미노리 씨는 취미가 뭐예요? 미노리: 제 취미는 노래예요. 좋아하는 가수는 BTS예요. 영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영민: 제 취미는 운동이에요. 미노리: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영민: 테니스예요.</p> </div> <p>1) 미노리 씨 취미는 뭐예요? 2) 영민 씨가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p>
<p>&lt;바&gt;</p>	<p>없음</p>
<p>&lt;사&gt;</p>	<p>없음</p>
<p>&lt;아&gt;</p>	<p>1. 会話を聞いて女性の趣味にイラストが一致すれば○、間違っていれば×を書きなさ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 남자: 취미가 뭐예요? 여자: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p> <p>(2) 여자: 저는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sup>23)</sup> 남자: 저도 좋아해요.</p> <p>(3) 여자: 저는 자주 운동을 해요. 남자: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p> <p>(4) 여자: 요즘 자주 음악을 들어요. 남자: 그래요? 저는 가끔 들어요.</p> </div> <p>(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p> <p>2. 次の会話を聞いて問いに答えなさ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남자: 하나 씨, 취미가 뭐예요? 여자: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자: 어디에서 산책을 해요? 여자: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해요. 리쿠 씨는 뭘 좋아해요? 남자: 제 취미는 게임 하기예요. 매일 게임을 해요. 여자: 그래요? 저도 게임을 하고 싶어요. 남자: 좋아요. 오늘 같이 해요.</p> </div> <p>(1) 남자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2) 会話の内容と一致するものを選びなさい。</p>

23) '영화 보기'와 '게임 하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보다는 '영화 감상'이나 '영화(를) 보는 것'과 '게임'이나 '게임(을) 하는 것' 등이 더 한국어다운 표현에 해당한다.

〈가〉, 〈바〉, 〈사〉에서는 ‘듣기’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없으므로, 나머지 교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나〉에서는 ‘본문’을 듣기 대본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이해 문제를 듣기 질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듣기 영역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에서는 두 개의 텍스트로 듣기 대본을 제시했는데, 모두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서술문의 형식만을 취했다. 첫째 대본에서는 각각 ‘취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문장을 들려주고 해당되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본에서는 ‘자기소개’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듣고 일치 여부를 묻는 활동으로 제시하여, 주제와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에서는 두 개의 대본을 모두 대화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첫째 대본에서는 시간 관련 표현, 제안, 약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미’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대본에서는 ‘취미’와 관련하여 주말 계획과 약속 등을 나타내었다.

〈마〉에서는 두 개의 대본을 모두 대화로 제시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본에서는 각 한 쌍의 대화를 통해 ‘직업, 국적, 취미, 좋아하는 운동’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취미’에 집중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대본에서는 ‘취미’에 대한 대화가 제시되어 있다. 덧붙여, ‘듣기’ 영역이 제일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었는데, 기능 영역의 배치 측면에서 보통 ‘듣기’가 다른 기능 영역에 비해 앞에 배치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에서는 〈마〉처럼 두 개의 대본을 대화로 제시했다. 이때 첫 번째 대본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활동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선호도와 빈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제시되어 ‘취미’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두 번째 대본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대화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취미’를 대답으로 삼고 있어서 선호도와 취미를 분리하지 못하였다.<sup>24)</sup> 한편, 각 문제의 발문에서 어떤 경우는 일본어로만, 어떤 경우는 한

24) 이와 관련하여 마쯔자키 마히루, 「일본에서의 한국어 듣기 교재 분석 연구 - 듣기 자료의 담화 유형 및 듣기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5-1,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 2008, 131-144쪽에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교재에서의 듣기 담화 유형과 활동의 특성으로 논의하였다.

국어로만 제시했는데,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덧붙여, 이 교재에서도 <마>와 같이 ‘듣기’ 영역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다.

<표 8> 말하기

<가>	없음												
<나>	없음												
<다>	(본문에 해당하는 ‘대화 연습 A, B’가 ‘말하기에도 적용됨’)												
<라>	<p>3. 표를 완성하고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무엇을 해요?</th> <th style="width: 50%;">얼마나 자주 해요?</th> </tr> </thead> <tbody> <tr> <td>(1) 한국어 공부를 하다</td> <td>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2) 독서를 하다</td> <td>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3) 차전거를 타다</td> <td>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4)</td> <td>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td> </tr> <tr> <td>(5)</td> <td>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무엇을 해요?	얼마나 자주 해요?	(1) 한국어 공부를 하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2) 독서를 하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3) 차전거를 타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4)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5)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무엇을 해요?	얼마나 자주 해요?												
(1) 한국어 공부를 하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2) 독서를 하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3) 차전거를 타다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4)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5)	매일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거의 <input type="checkbox"/> 전혀 <input type="checkbox"/>												
<마>	<p>&lt;말해 보세요&gt;                      1. 부정문으로 대답해 보세요.                      &lt;보기&gt; 직업/의사(×) 간호사(0)                      A: 직업이 의사예요?                      B: 아니요, 의사가 아니예요. 간호사예요.                      2.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lt;보기&gt; 노래                      A: 취미가 뭐예요?                      B: 제 취미는 노래예요.                      3.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lt;보기&gt; 마쓰야마                      A: 고향이 어디예요?                      B: 제 고향은 마쓰야마예요.                      4.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lt;보기&gt; 좋아하는 음식/비빔밥                      A: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B: 비빔밥이에요.                      &lt;응용해 보세요&gt;                      •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친구와 대화해 보세요.                      ① 고향이 어디예요?                      ② 전공이 뭐예요?                      ③ 취미가 뭐예요?                      ④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⑤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p>												
<바>	(본문에 해당하는 ‘회화’가 ‘말하기’ 영역에도 적용됨)												
<사>	<p>&lt;표현 연습 1&gt;                      • 한 사람이 사회를 보면서 그들 내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① 취미가 뭐예요? 각자 소개해 보세요.                      ② 그 취미는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해요?</p>												

	③ 그 취미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소개해 주세요. ④ 취미와 일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표현 연습 2> 1.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이야기해 보세요. 제 취미는 _____ 2. 취미 활동을 통해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	(본문에 해당하는 '말하기' 영역에도 적용됨)

<가>와 <나>에는 '말하기' 영역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와 <바>, <아>는 본문에 해당하는 '말하기'의 대화가 말하기 기능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에서는 '무엇을 해요' 부분에서, '취미'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을 제시하여 빈도 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빈칸을 두었는데, 교사가 이를 '취미'와 관련시켜 빈도 부사를 사용한 말하기 연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에서는 '말해 보세요'와 '응용해 보세요'를 통해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말해 보세요'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말하기 대화 텍스트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어 교체 연습만 제시했다. 그리고 '응용해 보세요'에서는 '말해 보세요'에서 연습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문(직업), 취미, 고향, 좋아하는 것'과, '고향, 전공, 취미, 좋아하는 음식/스포츠'에 대한 말하기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취미'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사>에서는 '표현 연습 1, 2'를 통해 말하기 활동을 제시했다. 그런데 '표현 연습 1'은 '취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룹별로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표현 연습 2'는 '취미 소개'와 '취미 활동 관련 에피소드'에 대한 '쓰기'를 통해 '말하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표 9> 읽기

<p>&lt;가&gt;</p>	<p>없음</p>
<p>&lt;나&gt;</p>	<p>없음</p>
<p>&lt;다&gt;</p>	<p>1. 그림을 보고 &lt;보기&gt;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일본어 번역)</p> <div data-bbox="279 380 890 49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보기&gt;                  수잔 씨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점심에는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p> </div> <p>(1) 제인 씨는 오전에 한국어를 _____ (그림)                  오후에는 영어를 _____ (그림)</p> <p>(2) 다니엘 씨는 오늘 밤에 영화관에서 _____ (그림)                  내일 아침에는 학교에서 _____ (그림)</p> <p>(3) 제인 씨는 모레 아침 한국에 _____ (그림)                  주말에는 집에서 _____ (그림)</p> <p>2.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p> <div data-bbox="279 696 980 86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민지: 사토 씨 내일 오전에 뭐 해요?                  사토: 학교 근처 공원에 가요.                  민지: 공원에서 산책해요?                  사토: 아니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 공원에는 꽃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민지: 그래요? 제 취미도 사진 찍기예요. 내일 오전에 같이 사진을 찍어요.                  • 많이 • 사진 찍기</p> </div> <p>(1) 위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일본어 번역)                  (2) 사토 씨의 취미가 뭐예요?</p> <p>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p> <div data-bbox="279 958 800 11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민지 씨는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점심에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웁니다.                  테니스도 자주 칩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매일 요가를 합니다.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합니다.                  • 아주</p> </div> <div data-bbox="279 1168 800 133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저는 준입니다.                  제 취미는 음악 듣기입니다.                  저는 한국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일 친구하고 같이 한국에 갑니다.                  모레 서울에서 K-POP 콘서트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 요리를 먹습니다.</p> </div> <p>(1) 위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일본어 번역)                  (2) 준 씨는 언제 한국에 가요?                  (3) 민지 씨가 하는 운동을 모두 쓰세요. (일본어 번역)</p>



<p>&lt;라&gt;</p>	<p>1.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 이름은 유토입니다.                  제 취미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댄스 페스티벌(Dance Festival)'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댄스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피곤하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정말 기대됩니다.</p> </div> <p>(1) 유토 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2) 학교 축제는 언제 합니까?                  (3) 위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p>
<p>&lt;마&gt;</p>	<p>없음</p>
<p>&lt;바&gt;</p>	<p>없음</p>
<p>&lt;사&gt;</p>	<p>없음</p>
<p>&lt;아&gt;</p>	<p>1. 次の会話を読んで一致すれば○、間違っていれば×を書きなさ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하나: 안나 씨, 취미가 뭐예요?                  안나: 저는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매일 미국 드라마를 봐요.                  하나: 저도 드라마를 좋아해요. 안나 씨는 일본 드라마도 봐요?                  안나: 아니요. 그런데 일본 드라마도 보고 싶어요.                  하나: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봐요.                  안나: 좋아요. 일곱 시에 만나요.</p> </div> <p>(1) 하나 씨는 드라마 보기를 좋아합니다. ( )                  (2) 두 사람은 오늘 아침 7시에 만납니다. ( )                  (3) 두 사람은 내일 같이 드라마를 봅니다. ( )                  (4) 안나 씨는 일본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 )</p> <p>2. 次を読んで問いに答えなさ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이곳은 친구와 자주 오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아주 큼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와 꽃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공원에서 꽃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공원에서 친구와 테니스도 칩니다.                  저는 내일도 친구와 함께 공원에 옵니다.                  그러나 내일은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p> </div> <p>(1) 이 사람은 내일 공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2) 上記の内容と一致しないものを選びなさい。</p>

<가>, <나>, <마>, <바>, <사>에서는 '읽기' 영역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먼저 <다>를 살펴보면,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읽기와 쓰기 문제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쓰기 문제는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찾아서 쓰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문제 1’은 읽기 활동이라기보다는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행동을 쓰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문제 2’에서는 대화로 제시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읽기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혹은 진정성, authenticity) 측면에서 대화형 텍스트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 3’은 두 개의 서술형 텍스트를 제시하고 내용 파악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때 제시된 텍스트가 시간 순서에 따른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서 ‘단락’을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텍스트를 각각 가로로 나열하여 제시했는데,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가 각 텍스트의 순서와 무관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5)</sup> 덧붙여, 활동의 발문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을 함께 제시한 것, 한국어만 제시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데 발문의 난이도를 고려했다고는 볼 수 없었기에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라〉에서는 ‘취미’와 관련된 읽기 텍스트를 전체 4개의 단락으로 구성하고, 읽은 내용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름 제시(1문장)-취미 소개, 동아리 활동(2문장)-학교 축제(2문장)-학교 축제에서의 공연 연습(4문장)-학교 축제에 대한 기대(1문장)’의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서는 ‘취미’보다는 ‘학교 축제’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내용 확인 문제는 ‘취미, 축제’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에서는 첫 번째로 대화형 텍스트가, 두 번째로 서술형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었다. 먼저 대화형 텍스트는 3개의 대화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라마를 보는 취미를 언급한 이후 갑자기 함께 드라마를 보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끊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에서도 ‘취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

25) 일반적으로 읽기 텍스트가 있을 경우, 텍스트의 순서에 따라 문제나 선택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로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주로 '-을/를 좋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호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에서도 '취미' 보다는 '선호도'와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술형 텍스트에서 '단락'에 대한 개념이 간접적으로나마 제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단락 구분 없이 문장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더구나 한 줄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서, 그 배치 방식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내용 전개를 보면, [가] 공원 소개(5 문장)-[나] 공원에서 자주 하는 것(1문장)-[다] 공원에서 가끔 하는 것(1문장)-[라] 내일 계획(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취미'와 관련된 것은 [다]의 한 문장밖에 없어서 이것이 텍스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까 싶다. 둘째, [다]와 [라]의 맥락 연결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에서 친구와 가끔 공원에서 테니스를 친다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라]에서는 친구와 함께 공원에 올 것이지만 테니스를 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셋째, [라]에서는 앞의 내용으로 추론할 수 없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라]의 '내일도'의 '-도'라는 조사의 의미 기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와 호응하는 내용을 앞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여 읽기 활동의 발문이 어떤 것은 일본어로만, 어떤 것은 한국어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표 10〉 쓰기

〈가〉	없음
〈나〉	없음
〈다〉	4.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취미를 써 보세요. (일본어 번역)
〈라〉	2. 여러분의 취미를 써 보세요. (1) 아래 내용을 간단히 써 보세요.
	취미가 뭐예요? (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언제 해요? 얼마나 자주 해요?
	언제부터 했어요?
	누구하고 같이 해요?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글로 써 보세요.

<마>	없음
<바>	없음
<사>	<표현 연습 2> 1.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이야기 해 보세요. 2. 취미 활동을 통해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	1. 自分の趣味について書きなさい。

<가>, <나>, <마>, <바> 교재에서는 ‘쓰기’ 영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다>에서는 읽기/쓰기의 통합 활동에서 제시된 쓰기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읽기 텍스트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범적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sup>26)</sup> 그런데 쓰기 활동 앞에 제시된 읽기 문제 1~3에서 2의 텍스트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하는 활동에서 모범 텍스트가 부족하다면, 쓰기의 과정과 쓰기에 포함될 내용 등에 대한 장치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라>에서는 ‘읽고 쓰기’라는 기능 영역의 제목과 함께 읽기 텍스트 이해 후 쓰기 기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읽기 텍스트를 바탕으로 쓰기 활동을 하는 읽기/쓰기 통합의 성격을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읽기’에서 제시된 텍스트가 쓰기 활동의 모범적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시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특정 개인의 취미 자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학교 축제에서의 공연 준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쓰기 전 단계인 개요 쓰기에서는 오히려 ‘취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읽기 텍스트가 쓰기 활동의 모범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취미’에 초점을 둔 쓰기 활동을 위해서는 읽기 텍스트의 내용도 ‘취미’를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에서는 ‘표현 연습 2’의 활동 두 가지를 통해 쓰기와 말하기 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때 발문만을 제시할 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

26) 쓰기에서 읽기 텍스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재기, 「읽기·쓰기 연계 활동의 교육적 의미」, 『독서 연구』 28, 한국독서학회, 2012, 95-99쪽에서 논의한 바 있다.

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더구나 앞에서 그와 관련된 텍스트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과연 이 활동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아〉에서도 취미에 대해 쓰라는 발문만 일본어로 제시되어, 〈사〉의 쓰기 활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가 서로 연계되어 제시된다고 본다면, 〈아〉에서도 쓰기 앞에 제시된 읽기 텍스트가 '취미'를 주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의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4. 교재 분석의 결과

여기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 내 교재들에서는 교재의 유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교재 구성의 순서와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았다. 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교재 구성에서 일정한 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점이였다.

둘째, 제시된 어휘들이 주제와의 관련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어휘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연습 문제나 본문의 새 어휘 제시를 통해 주제 관련 어휘가 아주 적게 간접적으로만 드러나는 교재도 있었다. 그리고 단원의 주제인 '취미'와 관련된 어휘들을 제시한 교재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주제 관련 어휘가 개별 영역으로 제시되더라도 아주 적은 경우, ② 제시된 어휘와 그 연습 문제가 단원 주제와의 긴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지나치게 많이 제시한 경우,<sup>27)</sup> ④ 사용 빈도나 중요도 등이 학습자의 수준

27) 조금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상위 개념의 취미 어휘로도 충분하나 다양한 상위 개념의 어휘와 함께 하위의 위계에 해당하는 세부 어휘들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에 비해 높은 어휘들을 제시한 경우, ⑤ 실제 한국에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어휘(표현)들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셋째, 문법의 측면에서는 단원 주제와의 연관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취미’ 소개와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문법은 ‘V-기’, ‘V-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동사의 활용형, 불규칙 활용<sup>28)</sup>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N을/를 좋아하다’, ‘-고 싶다’와 같이 기호나 바람 등을 나타내는 문법(표현)에 교수-학습의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초급 수준에서 제시의 필요성도 낮고 주제의 상황과 관련하여 화용적으로도 어색한 ‘랍니다’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제시된 문법을 연습 문제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어휘 연습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문법에 대한 연습 문제에서도 제시된 문법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루기도 했는데, 그 의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넷째, 본문 영역에서는 대화 맥락이나 대화의 실제성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대화 맥락의 측면에서, ‘취미’ 관련 대화가 갑자기 선호도나 취향 관련 대화로 바뀌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취미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일정, 계획 등을 묻고 답하는 쪽으로 바뀌거나, 취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고향이나 전공, 좋아하는 한국 음식 관련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sup>29)</sup> 다음으로, 대화의 실제성이 부족한 표현이 사용된 발화도 보였다. 예를 들어 ‘제 취미는 테니스 치기/사진 찍기예요.’와 같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라고는 할 수 없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었다.

다섯째, 듣기 영역에서는 배치의 타당성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 교재에서는 듣기가 의사소통의 가장 기

28) 동사의 활용형은 ‘-아요/어요, -(스)니다, -(스)니까?’ 등이 있었고,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드, 버, 르 불규칙’ 등이 있었다. 덧붙여, 동사에 대한 현재의 관형사형 어미 ‘V-는’을 제시한 교재도 있었는데, 이것을 ‘V-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해당 교재에서도 문법 연습을 제외하고 ‘는 것’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V-는 N’의 쓰임은 읽기 텍스트 부분에서 드물게 나타날 뿐이었다.

29) 이 외에도 대화가 완결되지 못하거나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본이 된다고 보아 앞에 배치하는 것과 달리 마지막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30) 그리고 듣기 대본에서도 단원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섯째, 말하기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연습과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기 영역이 없거나 본문을 말하기 영역으로 처리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심화된 말하기 활동을 하기 곤란한 교재가 있었다. 본문 대화에서 단원의 핵심 어휘와 문법을 이해하며 기계적 연습을 한다면, 말하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연습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 활동이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역할을 하는 자료가 없었다.

일곱째, 읽기 영역에서는 읽기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31) 읽기 텍스트로 대화형 텍스트를 제시하거나, 본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 질문을 읽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단원 주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읽기 텍스트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읽기 텍스트의 완성도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여덟째, 쓰기 영역에서는 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쓰기 활동 구성이 부족했다. 즉, 글을 구상하고 소재를 찾고 이를 조직하여 구성해 나아가는 과정적 쓰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32) 그리고 읽기와 쓰기가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곧 읽기에서 제시된 텍스트가, 쓰기 활동을 위한 모범적인 참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0) 학습자들이 듣기를 어려워한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그 배치를 뒤쪽으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

31) 신영선·정홍모, 「초급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 - 주제, 유형, 활동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3, 한민족문화학회, 2018, 231-237쪽에서는 읽기 활동과 관련하여 단계성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교재에서의 읽기 활동에서는 이러한 단계와 관련된 사항을 찾기 어려웠다.

32) 그나마 개요 질문이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취미에 대해 쓰라는 발문만 제시하고 있었다.

## 5.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취미’ 단원에 초점을 두어 단원 구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논의의 결과를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

- 1) 단원 구성: 전반적으로 교재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원 구성의 순서와 내용 등이 온전한 체계를 띠지 못했다.
- 2) 어휘: 어휘 부분을 분리하여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휘의 수나 난이도, 주제와의 긴밀성, 학습자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3) 문법: 단원 주제와의 연관성, 난이도나 실제성, 연습을 위한 문제 제시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 4) 본문: 단원 주제와 관련하여 대화 맥락이나 실제성 등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 5) 듣기: 단원 주제와의 관련성, 배치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 6) 말하기: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말하기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7) 읽기: 단원 주제와의 긴밀성,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 등의 측면에서 어색하거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 8) 쓰기: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을 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거나 읽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취미’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①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한국어 교재에 비해 그 체계가 긴밀하게 짜여 있지 않고, ② 단원 주제와의 관련성을 긴밀하게 유지하지 못하며, ③ 제시된 텍스트들에서 한국어다운 표현



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했으며, ④ 각 기능 영역에 대한 활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인 저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저자나 일본 단체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도 다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인 저자나 일본 단체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면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과 관련된 경향성을 진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가이도 리카, 「일본 출판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대화문 분석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23.
- 강남욱·김호정, 「한국어 교재 평가론의 통시적 고찰」,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2, 1-33쪽.
- 강현화 외,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2022.
- 고려대 한국어센터, 『고려대 한국어 2A』, 고려대출판문화원, 2022, 61-77쪽.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2006.
- \_\_\_\_\_, 『한국어교육론 3』, 한국문화사, 2006.
- 김경자, 「일본 대학의 교양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미례,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 일본 현지 출판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선정 외, 『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설, 2010.
- 김영만,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2005.
- 김은정·김혜진,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의 내용적 오류 양상 - 응집성(coherence)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7, 한국작문학회, 2023, 67-102쪽.
- 김현강·이윤진, 「한국어 교재 '본문'의 담화적 요소 분석」, 『사회언어학』 21-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3, 49-72쪽.
- 미쯔자키 마히루, 「일본에서의 한국어 듣기 교재 분석 연구 - 듣기 자료의 담화 유형 및 듣기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5-1,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 2008, 127-147쪽.
- 박소연,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 -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99-121쪽.
- 방희경, 「한국어 교재의 구성 및 내용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5,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21, 113-133쪽.
-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2A』, 문진미디어, 2015, 46-67쪽.
- 서종학·이미향,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2007, 117-199쪽.
- 서종학·이미향·박진옥, 『제2판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2020.
- 성아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대화문의 상황 맥락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34, 한국국어교육학회, 2023, 205-238쪽.
- 신영선·정홍모, 「초급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분석 - 주제, 유형, 활동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63, 한민족문화학회, 2018, 211-246쪽.
- 이미혜 외, 『이화 한국어 1-2』,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18, 128-143쪽.
- 이소영, 「초급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대화 원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161-187쪽.
- 이재기, 「읽기·쓰기 연계 활동의 교육적 의미」, 『독서연구』 28, 한국독서학회, 2012, 82-110쪽.
- 지현숙·오승영, 「한국어교육에서 '맥락' 논의에 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115, 한국국어교육학회, 2018, 135-159쪽.
- 진대연,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1999, 407-434쪽.

최은지, 『한국어 쓰기 교육론』, 하우, 2020.

홍종명 · 이준호 · 안정호,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 - 국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79-116쪽.

홍지현 · 허방신 · 심만영, 「한국어 교재 연구 동향 분석 - 2000년~2022년 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6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3, 163-202쪽.

황인교, 「국내 · 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3, 287-329쪽.

• 분석 대상 일본의 한국어 교재

金菊熙 · 李順蓮 · 安蕙蓮 · 李旼映, 『いよいよ韓国語』, 朝日出版社, 2018.

金永鍾 · 張栄順 · 黄貞蘭, 『美しいキャンパス韓国語 1』, (株)美しい韓国語学校, 2022.

金智賢, 『改訂版 教養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2023.

金泰虎, 『韓国理解への鍵』, 白帝社, 2015.

朴瑞庚 · 林河運 · 崔在佑, 『スクスク韓国語』, 朝日出版社, 2016.

李順蓮 · 朴珍姬 · 金菊熙, 『とくとく韓国語 1』, 朝日出版社, 2024.

李幸宣, 『みんなで一緒に！韓国語 1』, 五味出版社, 2022.

酒広康裕 · 金重變, 『ワイワイ話そう中級韓国語』, 朝日出版社, 2023.

## A study o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used in Japan focusing on the ‘Hobby’ unit

Shin, In-hwan\* · Kim, Mun-gi\*\*

In this paper, we aimed to analyze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bby’ unit. We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and what it looks like by examining the following parts: vocabulary, grammar, text,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re were cases which the system was inconsistent in the unit structure. ② The vocabulary in the unit was not presented, or if it was, it was not appropriate for the topic, learner level, or length. ③ In terms of grammar, there were also cases where there was a lack of cohesion with the topic or practicality, or there were no exercises. ④ When presenting the main texts, listening scripts, and reading texts,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re were deficiencies in maintaining the context related to the topic, realism of expression, and completeness. ⑤ In speaking activitie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learners would have difficulty performing actual activities. ⑥ In some cases, there was a lack of presentation of materials for process-oriented writing activities or connections to reading.

**Key words** : Jap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xtbook, Japanese learners, hobby unit, unit organization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5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14일

---

\* Matsuyama Univ.

\*\* Kyungsung Univ.